



◇서암스님 영결식을 마친뒤 운구행렬이 봉암사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봉암사 일주문 옆 연못으로 장엄된 봉암사 연화대에 중정 법전스님 등이 거화하고 있다.

#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셨습니까

## 서암당 홍근대종사 다비식

여법하게 살다 여법하게 가신 영원한 수좌 서암당 홍근 대종사. 조계종 내 대표적인 선승(禪僧)이었던 서암 스님은 3월 29일 오전 7시 40분 봉암사 연화실에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세수 87세, 법랍 68세.

세속적인 욕심에 연연하지 않았던 스님은 조계종단의 8대 종정을 지냈지만 문종도 사찰도 없이 오직 수행에만 열중한 진정하신 스님이였다. 이 시대 수좌들의 사표였다.

스님은 임종계를 남겨달라는 수좌들에게 "달리 할 말이 없다. 누가 물으면 그 노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스님의 삶은 한국 수좌들과 불자들에게 살고 죽는 일이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임을 보여줬다. 스님의 열반은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중생들의 번뇌를 불살라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도정임을 확

실인 인식시켰다. 그래서 스님을 여인 불자들은 고통도 슬픔도 없다. 2일 서암 대종사 영결식이 회양산 봉암사 대웅전 앞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수좌장'으로 봉행됐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 노무현대통령, 이창동 문광부 장관,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상배 한나라당정책위의장, 신도대표 무궁화 보살은 "철석같은 신념과 원력으로 정진했던 모습은 출가사문의 귀감이 됐다"며 애도를 표했다.

또 영결식에 참석한 1천여 선승들은 스님이 남겨준 정진력을 본받아 여법한 수좌가 될 것을 발원하는 자리가 됐다. 수좌들은 영결식과 다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구동성으로 서암 스님 수좌상을 얘기하며 '결단코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서원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정진하는 10년 가행정진에 들어간 고우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은 "30대 수좌로 김통사 금선암에서 수행하던 중 폐암으로 방황하던 나를 바로잡아 주신 은인"이라며 "당시 스님은 50대 수좌로 봉암사 6년경사 후 금선암에 오셨는데 스님의 바른 행과 언행은 수좌들의 모범이 됐다"고 회고 했다.

##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수좌회장' 봉행

### "여법한 수좌 될 것을 발원"

### "큰스님 유훈따라 사리 수습안해"

봉암사 구암 법자진 설정스님(수덕사)은 "스님은 평생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한 신념이 철저하신 분이였다"며 "선과 교 그리고 신학문을 겸비하신 선지식이었던 스님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력은 오직 수행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은 "30년간 큰스님을 보면서 망상 분별 집착을 버리고, 탁마하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줬다"며 "스님께서서는 수행자는 언제나 안에서 밖에서 현재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본분사를 잃지 않고 웅망정진하는 것만이 수행자의 길이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2년차 수좌 정견스님은 "수좌들의 사표였던 어른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뺏속에 남아 있다"며 "스님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출가자가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수행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판가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굳은 수행정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영결식후 곧바로 발원이 이어졌다. 400여장의 만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작된 운구행렬은 인로왕변 명정 건사 오방변 무상계 위해 영정 법주순으로 이어졌다. 다비장을 향한 서암스님의 법구를 따르는 1천여 스님과 4천여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큰스님을 여의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오후 12시 30분경, 회양산 봉암사 일주문 옆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됐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 봉암사 주지 원타스



◇연꽃으로 장엄된 스님의 법구가 일주문을 나서고 있다.

님 등은 참나무와 가마니, 볏짚으로 만든 높이 2.1m의 연화대에 거화했다. 스님의 법구가 불길에 휩싸이자 한 수좌 스님은 두손을 모으고 "서암 큰스님은 수좌들이 가야 할 길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표였다"며 스님의 원가해탈을 염원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수화중 4대가 모여 가합(假合)된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과멸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다비식. 스님의 다비식은 시방세계 모든중생의 품과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대중들에게 분명히 일러줬다. 스님은 수행의 길은 대자유를 얻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생활것도 멸할것도 없으니 허공에 이룰거리는 꽃과 같음을 보여줬다.

한편 문도대표인 서호 스님은 "큰스님의 유훈에 따라 사리는 수습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봉암사= 김원우기자 w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불자들이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400여장의 만장을 들고 운구행렬에 함께했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군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변 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지고 고상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 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 오염 등 각 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인해 전 에었던 각 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 공해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 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중장기의 염증 등 전 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 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 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나라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는 식염, 구지뽕나무 등 각 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처리를 거친 그 결실을 불치병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